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      |                     |              |                                   |
|------|---------------------|--------------|-----------------------------------|
| 대학명  | 저장경찰대학교             | 기숙사비         | 755,000/한 학기                      |
| 파견지역 | 저장성 항저우시            | 기숙사비<br>납부방법 | 일시불(○) 분할납부( )<br>※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
| 파견기간 | 16.09.17 ~ 17.06.23 | 기타비용         |                                   |

## ▣ 파견자 정보

|    |     |    |     |
|----|-----|----|-----|
| 성명 | OOO | 학과 | OOO |
| 성별 | 여   | 학년 | 4   |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7. 06. 24.

파견자 : (서명)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학기 초 한국인 유학생들만 따로 불러 반 편성 담당 선생님과 단체 대화를 실시 합니다. 만약 그 때 선생님과 대화를 잘 이어가지 못할 경우 조금 단계인 1급 반에 진학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듣고 말하면 그 윗 단계 2급 반이고, 웬만한 대화를 할 수 있으면 3급 반에 진학하여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은 매주 월, 화, 수, 목, 금까지 있으며 보충 수업이 발생할 경우 긴급적으로 토요일이나 빈 시간대에 맞춰 진행합니다. 저는 월, 목요일에는 오후 1시30분 부터 쓰기와 읽기, 수, 금요일에는 오후 1시 30분 부터 듣기와 말하기, 화, 수요일에는 아침 8시 10분부터 문화 수업을 받았습니다. 문화 수업은 반 편성 담당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수업인데 굉장히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나 정보를 매 3시간마다 가르쳐줍니다. 이 외에도 본 수업도 매회 3시간씩 진행되며 정해져 있는 수업 진행표에 따라 정확하게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수업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크게 듣기, 말하기와 읽기, 쓰기로 나누어 집니다. 듣기 수업의 경우 3시간 동안 듣기를 하며 문제 풀이 우주의 수업을 하고 말하기인 경우 본문에 나오는 글을 학생을 지목하여 읽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읽기인 경우도 말하기인 경우와 비슷하나 본문 내용을 읽고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문제에 대해 답변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쓰기인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우주로 예문과 문법 풀이 우주로 했습니다. 문화 수업은 중국 문화나 전통에 대해 배웠으면 매회 주제가 변경 되어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수업 진행 방식이 각각 달랐기 때문에 과제 또한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읽고 쓰는 수업은 과제가 대부분 받아쓰기 시험을 매 시간 봤으며 문장을 만들어 오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듣고 말하는 수업은 2단원에 걸쳐서 단어 받아쓰기만 했으며 별도의 과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 수업의 경우는 체험 활동의 비중이 매우 컸습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 저장 경찰 대학교의 경우 많은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으며 앞 쪽에는 중의대, 그 옆에는 기술대, 조금 더 나아가면 의대가 있으며 경찰 대학교에서 버스타고 조금 더 가면 예술대와 저장대가 있었습니다.
- 항저우의 날씨는 먼저 4계절로 나누어 볼 때, 3, 4, 5월에는 비가 적게 내리며 바람이 선선하고 햇빛은 적당했습니다. 반면에 6, 7, 9월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올 정도로 매우 습하고 더웠으며 일주일 내내 비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비가 내리는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조금 많이 분다고 생각이 들었으나 매우 습한 바람이 많이 불어 불쾌지수가 높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0, 11, 12월은 생각보다 우리나라 가을 날씨와 비슷했으며 비가 적게 오고 12월로 갈수록 아침, 낮, 밤의 온도 차이가 큰 편이었습니다. 1, 2월의 경우 한국보다 따뜻하긴 했으나 바람이 찬 편이라 옷을 겹겹이 있는 편이 생활하기 편했습니다.
- 항주의 교통은 생각보다 좋았고 쾌적했습니다. 경찰 대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고 도보 10분 거리에도 버스 정류장이 있었습니다. 이 두 곳만 봐도 10대가 넘는 버스가 지나가 웬만한 장소는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도 버스로 보통 40분 거리에 있어 조금만 찾아본다면 항주의 관광지는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지리에 있었으며 교통 수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 학교 주변에는 영화관뿐만 아니라 대형 마트, 음식점, 노래방, 숙소, 은행등이 있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숙사 정보

|           |  |      |       |
|-----------|--|------|-------|
| 비 용       | 755,000  | 내부구조 | 2인 1실 |
| 기숙사 규정 사항 | <p>숙소 내 취사는 금지하나 민일 취사를 원할 경우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주방에서 시행 해야 합니다. 가급적으로 학생들이 취침하는 10시 이후에는 소음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외부로 나갈 경우 10시 이전에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p> |      |       |
| 주인사항      | <p>2주에 한 번씩 학교 측에서 숙소를 검사합니다. 벌점이나 체벌은 없으나 전체 공지로 다시 한 번 더 주인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불과 배게 커버를 바꾸어 주며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통을 비워줍니다.</p>              |      |       |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현관 앞

기숙사 앞에는 정자가 있어 학생분 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쉬거나 얘기를 하였고 기숙사로 가는 길도 매일 본과 학생들이 청결하게 관리해 주어서 깨끗했었고 유학생들도 심터 공간에서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앞쪽에는 본과 학생들의 기숙사가 있었고 기숙사로 들어오면 일 층에는 선생님들의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실, 화장실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지내는 이 숙소는 원래 외부 선생님들의 숙소라고 합니다. 숙소의 현관문은 순천향대 기숙사 현관문과는 달리 나무 재질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처럼 각 방의 카드키가 있어 반드시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 카드를 손잡이 윗 검은색 부분에 접촉시켜 열어야 합니다. 또한 방 카드로 학교 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식당카드와 방카드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들어가는 짧은 통로가 나오는데 그 옆에 화장실과 욕실이 함께 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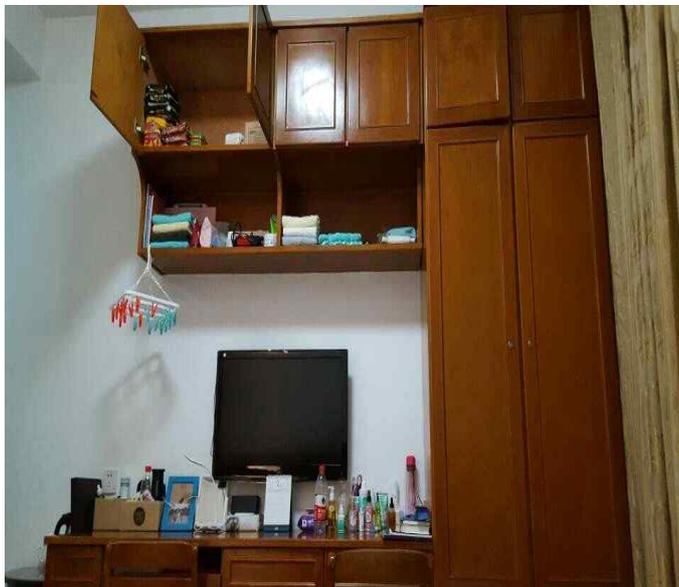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화장실

화장실은 생각보다 넓었으며 쾌적했습니다. 매일 청소부 이모님이 쓰레기 통을 비워주셨으며, 2, 3주에 한 번씩 화장실 청소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도 제공해주셔서 불필요한 지출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통유리 칸막이로 나뉘어져 욕실과 세면대, 화장실로 되어있었습니다. 세면대가 보시다시피 넓은 편이라 기본적인 화장품들을 옆 쪽에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소 침대는 2개의 싱글 침대이며 각각 베게 2개, 이불 하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선생님들이 머물다 가시는 숙소이다 보니 침대가 호텔 침대였고 침대 앞 쪽에는 텔레비전, 책상이 있었습니다. 책상 옆에는 옷장이 두 개 있어서 각각 한 개씩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옷걸이도 3, 4 개씩 제공되어 따로 준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발의 경우 현관문 앞 통로에 놔두거나, 옷장 밑 공간에 따로 놔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에는 베란다가 없었는데 숙소가 숙소이다보니 베란다도 조금 넓은 편이었습니다. 또한 빨래를 하고 널 수 있어 다른 나라 유학생들 보다 편하게 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빨랫대 밑 바닥 부분에는 빨래바구니나 과일 등을 놔두어 보관할 수 있었고 비가 와 신발이 많이 젖었을 때에는 신발을 놔둬 자연 건조 할 수 있었습니다. 모기장도 설치가 되어 있어 여름에 편했으며 암막 커튼과 일반 커튼이 있어 저녁과 낮에 시간대에 따라 사용했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강의실은 예전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교실과 비슷했지만 책상은 대학교 강의실 처럼 책상 여러 개가 하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칠판은 화이트보드로 되어 있어 매 수업시간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편하게 썼다 지웠다 했습니다. 수업은 교실 앞쪽에 있는 교탁 피씨로 진행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수업은 피피티로 했고 위쪽 빔 프로젝트를 사용했습니다.



식당은 한국 대학교 식당과는 많이 다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식당은 카운터에서 결제 후 음식을 배분 받았는데 경찰대학교 식당의 경우 각 구역마다 파는 음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구역 앞에 줄을 서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지목하면 급식 담당자가 식판에 밥과 함께 잔반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잔반은 가격이 달랐으며 적게는 2元, 많게는 4元까지 되었습니다.



본과 학생들은 세탁실 보다는 업체를 이용했고 저희들은 저희 숙소 뒷 편에 있는 호텔 6, 7층의 세탁실을 이용했습니다. 6, 7층에 각각 2대 씩 있었고 세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학생들의 자신들의 물품으로 사용했으며 그 호텔에 머물고 계시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손님들이 사용했었습니다. 세탁기는 일반 세탁기였으며 세탁기 버튼 부분에 영어로 적혀 있어 처음 온 유학생들도 충분히 혼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도서관은 3층 4층을 주로 열람실로 사용하며 학교에서 발급해주는 파란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파란카드를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 코트대여(배드민턴, 테니스, 탁구대)를 할수 있으며, 파란카드에 돈을 넣어서 학식을 이용하는데 사용을 한다. 보통 수영장은 한번가는데 30위안씩 빠지는데 학교에서 1달에 300위안씩 채워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영을 좋아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다. 수영장과 헬스장의 시설은 좋으며 정말 잘 이용하면 공짜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도서관은 21시30분이 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공부를 더하고 싶어도 기숙사로 돌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22시가 되면 모든 경찰대학교 학생들이 다 취침을 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22시가 되면 모든 기숙사의 불들은 꺼지지만, 유학생들은 켜져있어도 된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다 보면 드는 생각은 여기는 군대 같구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 학생들은 시선이 따가울 정도로 많이 쳐다보기 때문에 그런 조금씩 생활하면서 익숙해져야할 과제이다.



학교 뒤쪽에 있는 음식 골목이다. 저녁에 가면 야시장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지하상가처럼 옷도 같이 팔고 있어서 직접 입어보고 옷을 구매할 수 있다. 옷은 생각 외로 비싸지 않다.

## 교환학생 피견 후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사실 원래 교환학생이나 중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 전혀 생각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다녀왔던 후기나 그 곳에서의 생활이 끝난 후 변화된 심정이나 생각들을 들은 후 나도 한번쯤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급하게 정보를 알아보고 신청을 했는데 다행이도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졌다. 교환학생을 중국에서 보낼 줄은 몰랐고 중국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걱정이 조금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중국에서의 학교 생활이나 여가 활동은 나에게 큰 만족으로 다가왔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던 내가 이번 프로그램은 통해 짧지만은 많은 시간을 보냈고 많은 부분은 겪고 느꼈다. 중국인들에 대한 인상이나 편견이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모습들도 많이 발견, 알아갈 수 있었다. 또한 중국 문화에 대해 여행을 다니다거나 본과 수업을 통해 배움으로써 우리나라와 중국이 많이 닮은 부분이라던가 전혀 다른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듯이 비록 내가 이곳에서 대략 1년을 보냈다고는 하나 아직도 중국인들에 대한 내 생각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다. 이 곳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중국인들과 부딪히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아직까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업 외 활동으로 몇 가지 꼽자면 첫 번째로 여행일 것이고 두 번째로 중국 학생들과 보냈던 시간들일 것이다. 첫 번째 여행은 중국에 대해 더 알게 된 계기가 되었고 여행을 통해 스스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마음가짐도 배우게 되었다. 두 번째 중국 학생들과 보냈던 시간들을 말한 것은 이 곳에 있다 보니 같이 온 유학생들과 보낸 시간도 좋았고 소중한지만 유학생 즉, 다른 나라 사람일 뿐인 나를 옆에서 많이 도와 주고 불편해 하지 않도록 신경써준 본토 친구들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몇몇의 학생들은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호기심 어린 시선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는 활동 등을 찍어 친구들과 공유하기도 했다. 이런 부분이 위에서 말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중 하나이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외의 학생들은 매우 친절했고 호의적 이었으며 배려 섞인 행동을 해주었다. 교내에서 했던 활동 중 하나를 꼽자면 연말에 학교 내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춤을 추었던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 좋은 기억이라곤 친구들과 같이 준비했던 그 시간들 뿐이었다.

단기 뿐만 아니라 장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먼저 중국에 대해 1, 2달 겪어보고 장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각 학교의 상황이나 대략적인 시스템 정도는 미리 공지를 해주거나 자료 첨부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내가 다녀 온 저장 경찰 대학교의 경우 매일 저녁 10시 이전에는 들어와야 하며 이후에 들어올 경우 정문에서 대기 중인 순찰분들에게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본과 학생들이 예비 경찰이다 보니 매일 집합이나 회의가 있어 늦은 시간까지 놀 수 없었으며 만일 유학생들끼리 여행을 갈려고 해도 다른 담당 선생님들의 확인서가 꼭 필요했다. 경찰행정 학생이 아닌 타고생은 분명 이러한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신청한 것일 텐데 막상 도착해서 생활하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이러한 부분은 학교 쪽에서도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